

한라포커스 2020년 '위기 넘는 질적 도약 준비' <2> 미래산업

## 제주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육성 '시동'

올 한해 2973억원 투입... 역대 가장 많은 규모  
전기차 충전 규제자유특구 실증도 첫 '시험대'  
고배 마셨던 화장품·블록체인 추가지정 재도전

제주의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2020년 역점 추진정책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포함시키면서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최대 예산 투입=제주도는 올해 미래산업분야에 2973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609억원보다 84.9% 증가한 것으로 '미래전략' 수립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이다.

핵심정책 사업을 보면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 ▷LNG 보급률 확대 ▷공공주도 해상 풍력 시범 ▷사물인터넷(IOT) 신기술 도입 및 활성화 ▷규제자유특구 조성 등을 통한 제주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 분야에서는 올해 9657대(전기승용·화물 8761대·전기버스 26대·전기이륜차 87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충전시설도 93기(급속충전기 83기·과급형 충전기 10기)가 신규 설치된다.

이 밖에도 바이오·화장품 산업의 제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화장품 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시험생산동 및 연구개발동'이 각각 올해 완공·착공되며,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도 착공에 들어간다.

▶전기차 충전 규제자유 특구=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주를 '전기차 충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특구 지정에 따른 실증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이동형 충전서비스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등 3가지 부문에서 이뤄지는데, 총 267억6900만원(국비 155억62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자치도는 2년간의 도내 실증 기간에만 110명의 고용, 330억원의 생산유발, 300만달러의 수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임시허가와 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제주의 경제구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정부가 '시험공간'이 될 뿐더러 실증에 실패할 경우 그동안 열을 올린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특구의 핵심과제 이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화장품·블록체인 특구 가능할까=지난해 7월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자유특구'를 발표했다. 제주는 전기차와 화장품·블록체인 부문에 특구를 신청했지만, 전기차 이후 추가 지정된 것 외에 나머지 부문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전기차 특구도 '충전'에만 제한됐다.

제주도는 올해도 화장품과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도전하기로 했다. 먼저 블록체인은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에 접목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화장품 산업은 제주의 청정 원물 자원과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시설(미생물자원·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이 있다는 점을 정부에 어필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도 본보와의 신년대담에서 "블록체인·화장품 산업분야의 특구 지정을 중단 없이 추진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동백꽃 꿀 따먹는 동박새 6일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활짝 핀 애기동백꽃에 동박새들이 찾아와 꿀을 따먹고 있다.

할 계획"이라며 "또한 지난해 오픈한 제주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해 제주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부분 집중 배정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도, 4조3607억 상반기에 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재정집행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도 세출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정기배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예산배정은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배정액을 한도로 계약체결 등 집행을 하게 된다. 예산배정계획은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제출(사업부서)→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 작성(예산부서)→확정(자치단체장)→관계부서 통지' 순으로 수립된다.

제주자치도는 2020년 예산배정의

중점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투자부분(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기준) 5조 8229억원의 74.8%(전년대비 0.5%p 증가)인 4조3607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으며, 정부예산 상반기 배정액 71.4% 대비 3.4%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상반기 배정액 4조 3607억원 중 재정신속집행 대상액 3조 5583억원(81.6%)을 조기 배정해 공공부문의 지역내총생산(GRDP) 견인하는데 노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산배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배정함으로써 사업발주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면서 "배정계획과 연계해 지금도 원활히 조달돼 지역경제가 커가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 도내 외국인직접투자 2년째 '홍보'

2019년 신고 4억1700만... 도착 3억1400만달러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5년 연속 200억달러를 달성했지만 제주지역은 뚜렷한 성장세 없이 2년 연속 '홍보'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233억달러로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도착 기준으로는 128억달러로 역대 4위이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 269억달러(신고 기준)에 비해서는 13.3% 감소했다. 도착 기준 투자액은 26.0% 줄었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상반기에는 다소 부진했으나 하반기 들어 개선되는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흐름을 보인 것으로 정부측은 해석했다.

이 기간 제주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신고기준 85건 4억1700만달러로 2018년에 비해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분기까지 68건 2억1400만달러에서 1분기만에 2억달러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10억8900만달러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지만 대규모 투자사업 중단 등 악조건속에서도 나름 선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도착기준 규모에 있어서 34건 3억1400만달러로 2018년 3억5700만달러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엔 9억달러였다.

제주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면서 그나마 홍보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제주 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 공사에 따른 중국자본이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위주의 투자 지양은 물론 IT·BT, 미래전략 블록체인 등 신산업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에 편중된 투자를 다변화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흐름 등을 감안할 경우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윤기자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로 선도하는 혁신의정

새로운 시작 도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새로운 시작, 도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